

[사회]

큰 일교차 감기 '비상'

고열·인후통 호소...광주 병원 환자 30% 늘어

전국에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감기와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번 감기는 고열과 몸살·인후통·근육통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데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17일 광주시 남구 미래아동병원은 평소 하루 평균 200여명 가량이던 감기 환자가 최근 300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30~40여 명의 어린이 환자들은 열을 동반한 편도선염·폐렴·몸살 등 독감 증세를 보여 일부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가검물 분석이 의뢰된 상태다.

7살짜리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은 조모(38·광주시 동구 계림동)씨는 "아이가 며칠 전부터 열이 오르고 기침을 자주해 병원에 왔다"며 "아이가 다니는 K초등학교에서는 한 학급에

50% 가량의 학생들이 감기증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평소 100여 명의 감기환자가 찾은 광주시 첨단 미래이비인후과에도 최근 20~30% 정도 환자가 늘었다.

전남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화순군 화순을 안병현·백준 이비인후과에는 소아에서 성인까지 하루 90여 명의 감기 환자가 내원하고 있다. 이는 평소보다 30% 가량 늘어난 수치로 대부분 고열과 인후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

목포시독병원 내과는 평소 10명 미만으로 내원하던 감기환자가 최근 20여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 같은 환자 가운데 7~8명은 전신 근육통과 두통, 고열에 시달리고 있으며 독감으로 의심되는 환자도 많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전문가들은 감기·독감 유행에 대

해 '설 명절 이후 신체 면역력 약화'와 '환절기 높은 기온차'를 꼽았다. 긴 설 연휴와 귀성·귀경으로 인한 외부 접촉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도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하루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신체 면역력이 약화된 것도 발병의 한 원인이다.

광주 미래아동병원 김병희 원장은 "대부분의 감기 및 독감환자는 통상적인 치료만으로도 곧바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와 소아의 경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환자가 3.34명으로, 유행기준인 3명을 넘어섬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 도심 차량 속도 빨라졌다

교통량 분산 등 효과 시속 1.5km ↑

지난해 광주 도심의 차량 운행속도가 1년 전에 비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시내 23곳의 도로 구간에 대해 지난해 9~10월 교통량과 차량속도 등 '교통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심 구간의 경우 평균 차량 운행속도가 시속 20.81km로 2006년 조사 때 19.31km에 비해 시속 1.5km 빨라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2순환도로와 간선도로 등 외곽도로의 확충으로 도심 교통량이 분산된데다 전국제전 개최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 덕분으로 분석된다.

주요 교차로의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 교통량은 계수교차로가 17만 651대로 가장 많았고 백운교차로는 15만292대, 광천사거리 14만5천52대

순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전체 교통량은 2006년에 비해 1.68% 증가했다.

또 최근 시간대인 오전 8~9시 교통량은 계수교차로가 1만3천824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천사거리 1만1천677대, 하남공단 입구는 1만1천677대를 각각 기록했다.

교통량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산월분기점으로 제2순환도로 개통에 따라 2006년에 비해 229.5%나 늘었으며 무등경기장과 부일공업사 교차로는 교통량이 각각 9.5%와 8.5% 감소했다.

고속도로 나들목(IC)의 일평균 교통량은 동광주 나들목이 7만304대로 가장 많았고 광산 나들목이 6만3천391대, 서광주 나들목이 5만6천314대로 그 뒤를 이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봄은 언제 오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2월 18일
(음 1월 12일)
◇전국날씨

광주	맑음	-5~6℃
주요도시	맑음	-3~7℃
안동	맑음	-2~7℃
부산	맑음	-3~6℃
대구	맑음	-6~6℃
대전	맑음	-6~6℃
전주	맑음	-7~7℃
충주	맑음	-6~8℃
청주	맑음	-7~7℃
영주	맑음	-6~5℃
포항	맑음	-5~7℃
울릉도	맑음	-8~6℃
독도	맑음	-11~7℃
제주	맑음	0~3℃

서울=북서~북서풍 파고 0.5~1.5m
부산=북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북서~북서풍 파고 0.5~1.0m
안동=북서~북서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12:34 썰물 < 05:03
여수 밀물 < 07:43 썰물 < 00:58 19:47

▲해돋이 07:17 ▲해질 18:17 ▲달돋이 15:08 ▲달질 05:18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날씨						
최저/최고	-4/8	-2/9	-2/10	2/7	-1/9	0/8

홍도·흑산도 '새들의 낙원'

국내 조류 75% 서식

특히 이들 섬에서는 매,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꼬리수리 등 환경부가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19종이 발견됐으며 푸른바다지빠귀, 붉은머리멧새, 중국지빠귀, 한국발종다리 등 국내에서 쉽게 목격되지 않는 철새들도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목격된 것은 이 지역이 시베리아 북부지역에서 번식을 한 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향하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이기 때문이라고 철새연구센터는 분석했다.

연남뉴스



대보름 부럼 준비
음력 정월 대보름(21일)이 나올 앞으로 다가온 17일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모녀가 땅콩과 밤 등 대보름용 부럼을 사고 있다. 정월 대보름날 밤 부럼을 깨물고 자면 1년동안 만사가 뜻대로 되고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학생 최다 질병 감기-결막염 순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감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역의 감기 발생비율은 전국 최고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전남지역은 최하위로 조사됐다.

1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전염병 표본감시체계에 참여한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33곳을 대상으로 '2007년 학교

전염병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광주지역은 학생 1천명당 '감기(인플루엔자 포함)'가 91.2명이 발생,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부산시(93.7명) 다음으로 많은 유행병률로 전국 평균인 43.2명을 훨씬 웃돌았다.

반면 전남지역 학생들의 감기 유행병률은 16개 시·도중 최하위인 1천명당 4.5명으로 두 번째로 유행

률이 적은 전북(18.8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에게 '감기' 다음으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결막염'도 사정은 비슷했다. 전남지역 학생들의 '결막염' 유행병률은 1천명당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지만 광주는 46.3명으로 대전(100.2명), 충남(55.9명), 제주(50.4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광주지역은 유행성이하선염(9.7명)과 폐렴(1.3명), 뇌막염(0.6명) 등의 유행병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 새날학교 전국 8곳에 분교 낸다

이주노동자 및 새터민 자녀들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대안학교 광주 새날학교가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광주 새날학교는 17일 "인천과 경기, 부산 등 전국 8곳에 새날학교 분교를 설립하고 학생을 모집, 오는 3월 개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밀집한 인천과 경기도에 각각 2곳(남동공단·서구), 3곳(시흥·파주·부천)이 생기며, 충북 청주와 충남 연기, 부산 강서구 등에 각각 1곳씩 설립된다. 분교장 선임도 이미 마친 상태다.

이주노동자·새터민 자녀 교육 기회 대폭 확대
인천·부산 등 3월 개학

분교장 등은 최근 인천 남동공단 한국외국인선교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각 분교는 교원 자격증 소지자나 원어인 강사 등으로 교사진을 갖추는 한편 이주노동자와 새터민 가정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벌여 학생들을 모집한 뒤 오는 3월 초 입학식을 개최한다.

인천 남동공단 분교장 전철현(59)

목사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국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인천 지역의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대안학교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새날학교 교장 이천영(49) 목사는 "광주거 소외계층 교육의 씨앗이 된 것 같아 흐뭇하다"며 "1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 및 교육 방법, 커리큘럼 등을 전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5명의 학생으로 개교한 광주 새날학교는 현재 이주노동자 및 새터민 자녀 15명이 다니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40년 전통! 합격률 70%! 전국수석 제왕!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3월 3일

광주고시학원

337-0000

2008년 (제8기) **한자 한문 지도사 자격모집**

모집대상: 1.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2008년 1월 1일 이후 고졸자
3. 2008년 1월 1일 이후 대학 졸업자
4. 2008년 1월 1일 이후 대학 재학생

모집분야: 1.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2008년 1월 1일 이후 고졸자
3. 2008년 1월 1일 이후 대학 졸업자
4. 2008년 1월 1일 이후 대학 재학생

문의: 1544-5359 / 236-3516

전통 침·뜸

... 무료 공개강좌 안내 ...

3월 13일(목) 오후 3시

“알기쉬운 침구학 세미나”

1544-5359 / 236-3516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E-Supporter 이학원

http://www.e-supporter.co.kr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필리핀에 비해 가격 최저! 비용 최고!

E-Supporter가 영수비용 ...

필리핀 이학원수익 무한공감!!

E-Supporter에서 배는 보충제 필수비용 외국어 학원

필리핀 내 호텔 숙박 (필리핀에 도착하면)

4차 항공료 - 200 - 400 (항공료 별도)

필리핀 내 호텔 숙박 (필리핀에 도착하면)

200 - 400 (항공료 별도)

264-0882, 010-2255-0459